은혜와 진리 소식



2026년 11월 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상을 섬기던 시어머님을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 송 영 란 -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 가끔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에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며 들은 설교 말씀과 부른 찬송가 가사는 그 후 오래도록 저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어린 제가 집안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에서도 저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집사님들과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저를 무척 귀여워하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여 시댁에 들어가서 생활하였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인 데다 절에 다니는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살다보니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안 경제 등 살림살이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저에게 "네 이름도 절에 올려놓았으니 그런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고생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아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중에 그 말을 들으니 저의 앞날이 암울했습니다.

그 무렵 이웃 마을에 한 작은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교회의 옥탑에서 십자가를 밝히는 환한 불빛이 제 눈에 들어오며 저의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활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열심히 교회에 다닐래요." 그리고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는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안산시로 이사를 와서 살던 중에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는 구역장님의 전도로 드디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정이 충만하신 구역장님을 보내주시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진리교회로 인도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시편 145:18,19) 할렐루야!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집 센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리고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도록, 우상숭배를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완고했던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느라 구역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이웃 구역장님에게 시어머님이 구역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구역장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어머님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참석하도록 힘껏 도와주셨습니다.

저 또한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직장 구역장 직분을 받고 여성봉사연합회에 소속하여 사랑과 섬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기쁨과 함께 섬기며 봉사하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핍박하던 시어머님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곳 안산에 교회당을 건축하던 시기에 어머님이 멀리 안양성전을 오가며 예배를 드리시더니, 세례를 받고 열심히 예배하는 생활을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 천국에 가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제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통증을 앓게 되어 진통제를 한꺼번에 몇 알씩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시편 27:14)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라기 4:2)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시편 107:20,21) 아멘! 주일예배에서, 주중예배와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약물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교구 전도사님을 모시고 밖으로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투병하던 초기에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모니카 연주를 배웠는데, 지금 구역장 기도 모임이나 국내선교연합회에서 나가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 연주로 찬양을 드리는 일이 무척 즐겁고 행복합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마음 깊은 곳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태복음 4:10) 할렐루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경기도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경기도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율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4권 (4단원 :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 (제22과)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 **본문** : 로마서 16:3-4
- **요절** :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 16:4)
- **찬송** : 402장(새찬송가 360장), 427장(새찬송가 191장)

신약 성경에는 매우 대조적인 두 쌍의 부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요, 다른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자기 땅을 팔아 그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 앞에 내어놓고는 그것이 땅값 전부라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성령을 속이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인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잠깐씩 언급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본도 출신 유대인 아굴라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살던 중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자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건너왔습니다. 그즈음,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도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다가 처음으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알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바울과 아굴라는 둘 다 장막 만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함께 힘을 기울였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지극하였던지 사도 바울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롬 16:4)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앙의 동지로서 물질과 기도로 사도 바울을 도왔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헌신적인 평신도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교역자의 열심이나 노력만으로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으며, 온 성도가 복음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와 섬김과 물질로 도왔던 아굴라 부부를 본받아 교회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그들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마침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아볼로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학문에 조예가 깊고 성경에 능통한 설교자로서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아는 지식이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풀어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때 아볼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올바로 깨우치게 되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굴라 부부가 학문이 많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성경을 상고하는 데 힘썼던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4,15)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는 데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을 권면해 줌으로써 그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만 살펴보아도, 처음에 로마에서 살던 중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자 고린도로 왔다가(행 18:1~3), 그 후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겼으며(행 18:18~26),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자 다시 로마로 갔다가(롬 16:3~5), 얼마 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도를 핍박하자 다시 에베소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딤후 4:19).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이처럼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살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즐거이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처소로 제공하였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신자의 가정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다는 것은 곧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아굴라 부부가 교회를 세우는 데 얼마나 헌신적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송천의 소래 교회 역시 서경조라는 성도가 자기 초가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음으로써 세워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구역예배 처소로 혹은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여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은 육신의 휴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집이 작든 크든, 화려하든 누추하든 상관없이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처소로 사용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집을 예배와 성도간의 교제와,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는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었지만 오직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항상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